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올해는 명성황후(1851~1895) 시해 120주년인 되는 해이다. 바로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새벽 5시, 구중궁궐까지 쳐들어와 일국의 국모를 시해한 일본의 만행이 저질러진 날이다.

속종의 계비인 인현황후의 아버지 민유종의 6대손인 명성황후(본명 : 민자영 閔紫英)는 경기도 여주에서 여흥 민씨 가문인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이씨 부인 사이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8세에 양친을 잃고 고향 여주를 떠나 서울에 올라와 일가에 기탁하고 있는 외로운 처지였다. 1866년 3월에 삼간택에서 선발되었으니 고종 황제보다 한 살 연상인 16세였다. 명성황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묘사를 살펴보면 아름답고 총명하고 기품 있고

명성황후 시해 120주년 추모의 역사적 의미

고 사교적이고 매우 독서열이 강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처음에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대원군과 부대부인을 잘 섬기고 궁중의 모든 어른들과 궁인들에게도 잘 대하여 궁내에 칭송이 자자하였으나 정작 지아비인 고종 황제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1868년 윤4월에 고종 황제의 사람을 받던 궁인 이씨에게서 완화군이 태어나자 입지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 독서를 열심히 하면서 고종 황제에게 여인으로 서 보다는 정치적 반역자로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1851~1895년 동안은 한국 역사에서 국내외적으로 격변이 심했던 시기였다. 안으로는 봉건체제에 도전하는 민중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상황이었다. 즉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과제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안겨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지 못한 고종은 그의 친정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명성황후를 통해

민씨 친족세력을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해 아버지인 대원군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성황후를 전면에 내세워 우회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즉 대원군의 고종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유교적 충(忠)의 윤리에 어긋나고, 반면에 고종 황제의 대원군에 대한 도전은 유교적 효(孝)의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명성황후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정치 주도권을 둘러싸고 초래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게 방파제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통해 고종 황제를 보좌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대외관계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어느 정도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외국인들의 기술을 보면 하 나같이 명성황후가 총명하고 외교력과 정치력이 뛰어났음을 묘사하고 있다. 청국과 일본의 각축이 치열한 상황에서 명성황후는 세력 균형의 외교정책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견제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친러배일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 병합의 최대 장애물로 명성황후를 지목하게 됐다. 결국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1895년 10월 일본 군대와 낭인들이 왕궁을 습격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때 명성황후는 나이 45세로 일본에 의해 시해당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조선은 열강들이 내세우는 최혜국 조관에 의해 이권 획득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은 강제로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15년 만에 식민지화의 아욕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철저한 반일주의자였던 개화기 명성황후의 정치적 입지의 중요성을 가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광복 70년에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룬 것은 명성황후를 비롯한 애국열사·독립투사들의 희생이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제 일본 당국은 명성황후 시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진실된 역사 반성이 있어야만 앞으로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지역을 브랜드 마케팅 하라!”



김 종 식 전 안도군수

생수를 예로 들면, 일반 생수보다 3배나 비싸고 우유나 맥주보다 비싼 프랑스 생수인 ‘에비앙(evian)’을 선택한다. 에비앙의 내용물은 잘 모르지만 단지 소비자의 마음속에 ‘에비앙 = 명품 생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이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강력 브랜드(Power Brand)로 만들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다. 브랜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현대의 기업경영은 브랜드 경영이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브랜드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을 브랜드(Branding)하고 그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의 소금은 뭘까? 프랑스 ‘계랑드’ 천일염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1kg 가격이 1000원대인데, 계랑드 천일염은 그보다 60배가 높은 6~8만 원에 거래된다. 전남 서해안에서 나는 천일염이 세계 최고인데도, 자기만의 가치를 부각시키

고 다른 것과의 차이를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계랑드 천일염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단 하나’의 소금’이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기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하는 로고(Logo)나 심볼(Symbol), 브랜드 슬로건(Slogan)조차 정립되지 못한 자치단체가 수도무하다.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하이 서울’(Hi Seoul), 부산시는 ‘다이너믹 부산’(Dynamic Busan),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 완도군은 ‘건강의 섬, 완도’이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은 민선 3·4·5기 ‘녹색의 땅 전남’에서 6기에 ‘생명의 땅 전남’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는 브랜드 슬로건인지 행정구호인지 알 수 없지만 3·4기 ‘1등 광주’, 5기 ‘창조도시 광주’, 6기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으로 바뀌었다. 서울, 부산, 제주 등은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광주시는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서 바뀌었다.

브랜드 슬로건은 그 자치 단체의 특성, 정체성, 미래가치 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 특정 제품의 상표가 자주 달라지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

워하고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서 결국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자치단체들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인식 부재가 지역 브랜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브랜드링해서 마케팅 할 것인가? 지역의 비교우위자원, 경쟁력 있는 자원, 미래가치가 있는 자원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다. 완도 전북은 특산물 브랜드 마케팅해 성공한 사례이다.

지방 행정에서 브랜드 마케팅은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이다.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회간접시설처럼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중앙 정부 눈치보고 사정하고 지원받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장이 명확하게 개념정립을 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치단체에 브랜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통합된 광주·전남 연구원에 ‘지역 브랜드 마케팅 연구팀’을 신설하여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브랜드 마케팅, 빠른수록 좋겠다.

의료칼럼

환절기·겨울철 대비 건강관리 요령



박 상 민 세계로 병원 건강증진센터 원장

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급격한 기온 변화 및 건조한 공기가 원인이므로 아침저녁에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을 유지시키고 적절한 방법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가습해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1주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증세가 동반된다면 병원을 찾아 폐렴이나 부비염, 중이염 등의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감기와 구별되는 독감은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감기보다 훨씬 심한 고열과 근육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독감이 유행하기 2주전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하므로 10월 중순까지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하기 바란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감기 및 독감의 증세와 합병증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생활 습관 및 예방 접종이 필요하

다.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과 함께 폐렴 예방 접종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평소 가지고 있는 증세가 더 나빠지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초기에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또 환절기에 악화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다. 기온이 낮아질수록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좁아진 혈관에 의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평소 혈압이 높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거나 치료를 받는 상태더라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겉옷을 잘 챙겨 쌀쌀한 날씨에 체온을 잘 유지시키고,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이나 야간에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자가혈압계가 있다면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와 취침 전, 운동 전에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고, 140/9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면 무리한 운동이나 외출은 삼가고 즉각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추위에는 날씨에는 몸의 유연성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이나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외출이나 작업 시작 전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앞에서 말한 질환은 대부분 체온 변화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발생한 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체온 유지가 필수이며,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칼로리와 과음을 피해야 한다.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고,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 발을 잘 씻어야 하며,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20도 정도의 실내 온도와 50~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몸 상태 변화와 이상 증세가 없는 지 잘 살펴보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社說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아직 시기 상조다

최근 가장 광주시립오페라단(오페라단) 창단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찬동하는 의견과 열악한 광주시 재정 형편에선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최근 음악인·시민단체 등 55명은 오페라단 창단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창단 기대 효과로 다양한 문화 향유 제공, 광주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꼽고 있다. 현재 빛소리오페라단 등 지역에서는 3개의 민간 오페라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 탓에 콘텐트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시의 재정을 감안해 상임단원을 두는 대신 작품에 따라 출연진을 뽑는 ‘객원단원제’를 유지하고 5~6억 원 규모로 작품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에 오페라단이 생기면 지역민의

문화 향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7개의 예술단 운영만으로도 가깝거나 ‘허리가 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광주시는 지방에서 가장 많은 7개의 예술단 운영에 한 해 141억 원(2013년 기준)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광주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과 대전이 4개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예술단 운영비도 인천비로만 117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공연예산은 2억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7개 단체가 이를 나눠 쓰는 형편이니 양질의 콘텐트가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시는 올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채용 비리와 수당 부정 지급 등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지금은 이들 기존 예술단이 잘 돌아가도록 ‘내실’을 기하 기에도 버거운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단 창단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겠다.

‘막힌 행정’으로 사라질 뻔한 ‘반딧불이 마을’

영롱한 불빛으로 낭만을 안겨주는 반딧불이(개똥벌레)는 요즘 쉽사리 구경하기 어렵다. 깨끗한 환경의 척도이기도 한 반딧불이를 주민들이 애써 키워 놓았으나 그 서식처가 송두리째 사라질 뻔한 일이 벌어졌다. 사라지지 못한 자치단체의 무감각 행정 탓이었다.

광주시 북구는 무등산 자락 평촌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 준설 공사를 벌이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최근 이를 철회했다. 국내 최초 도시형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된 이곳 주민들은 5년 동안 동네 하천에 반딧불이 애벌레 먹이인 다슬기를 정성스럽게 풀어 놓아 반딧불이의 숫자를 불러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곳은 외국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정돈의 명품마을이 됐다.

이러다 북구청은 최근 마을 앞을 흐르며 반딧불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던 풍양천(원효계곡) 200m 구간을 준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홍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폭 25m짜리

하천 바닥을 50cm가량 파내고 주변 수풀을 제거하는 공사가 끝내 진행됐더라면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반딧불이 서식처는 사라지고 말 뻔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안 된다며 손사래 치고 나섰지만 처음 구청은 막무가내였다. 해당 공사는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 없다며 이에 맞들은 척했다. 환경전문가의 만류는 물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낮기가 넘친 적이 없었다는 주민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북구청이 공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주민과 여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청정 환경에서 자라는 반딧불이의 소중함을 깨달은 조치일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반딧불이의 서식과 환경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는 보다 신중하되 단선적인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할 자치단체의 사고가 옛 틀에 갇혀 있어서야 되겠는가.

無等鼓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셨다면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것 같네요.” 강진 성전중 강경희 교사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건넨 말이다. 전교생 30명뿐인 성전중 학생들은 지난 7월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이해인 수녀를 만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강 교사는 이날 만남을 준비하며 아예 ‘내 생애 가장 특별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짰다. 아이들이 ‘예술의 거리’ 도시 탐험, 콘서트 관람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강진으로 돌아간 시간은

사건 당사자 극장을 먼저 찾은 것이다. 선생님들은 1시간 넘게 극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공간들이 어떤 곳일까 세심히 살펴보았다. 광주극장은 극장 투어를 진행키로 했고 아이들이 위한 ‘맞춤형 영화’를 준비했다. 이미 유명됐지만 프랑스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미라클 벨리에’다. 이 영화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 3년 소녀 폴라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우리 선생님

이 영화에도 선생님이 등장한다. 폴라의 노래 실력을 단박에 알아

본 음악 교사 파비앙이다. 그는 폴라에게 파리 음악학교 오디션을 제안하고, 폴라는 세상으로 나갈 꿈을 끈다. 영화는 시중 유행하고 따뜻하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폴라의 노래를 듣는 순간, 관객들의 마음은 무장해제되고 만다. ‘미라클 벨리에’ 특별 상영에는 보문중과 살레시오중 학생들도 참여한다. 특히 이 영화를 놓쳐 아쉬운 이 있다면 13일과 14일 광주극장에 둘러보시라.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따뜻한 마음 덕에 생긴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니...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